

광명소방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예방 합동 점검 실시

전체 화재 사망률 대비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사망률 8.8배 ↑

기사입력시간 : 2024/04/01 [16:04:00]

오효석 기자



[경기IN=오효석 기자] 광명소방서는 1일 광명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20개소에 대해 화재예방 합동 점검을 추진했다.

이날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예방 합동 점검은 정순욱 광명부시장을 비롯한 광명시 9명, 광명소방서 7명, 전기안전공사 2명으로 2개조로 나누어 합동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최근 5년간('19~'23) 경기도 화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건수는 43,316건이며, 주거용 비닐하우

스 화재는 371건으로 0.8%를 차지하고 있다. 인명피해의 경우 전체 인명피해 건수는 2,911명(사망 362, 부상 2549)건이며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인명피해는 48명(사망26, 부상 22)으로 전체 인명피해 대비 1.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화재 사망률(0.8%) 대비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시 사망률(7%)은 약 8.8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실내 가연물이 다량 적재되어 있고, 샌드위치 패널 등 화재 취약 구조재로 축조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어르신 및 외국인 등 취약계층 거주로 피난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에 따른 결과로 보였다.

이에 중점사항으로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에 최소한의 기초 소방시설 우선 설치 권장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 확인 ▲화재사례 전파, 초기 현장 인명대피 및 화재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화기·전기 취급용품 안전사용 지도 등 소방안전교육 등 현장안전컨설팅을 추진했다.

박평재 소방서장은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장안전컨설팅 및 관리카드 현행화로 화재로부터 광명시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